

조양호 위원장 “평창올림픽 향한 여정 시작”

첫 테스트이벤트 FIS 알파인 월드컵 6~7일 개최... 16개국 58명 선수 출전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올림픽 개막(2018년 2월9일)을 2년여 앞두고 첫 테스트이벤트와 함께 본격적인 여정에 들어갔다.

조양호(67)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첫 번째 테스트이벤트인 2016 아우더 국제스키연맹(FIS) 알파인컵은 평창올림픽을 향한 여정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국민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했다.

첫 테스트이벤트인 FIS 알파인 스키 월드컵(남자부)은 오는 6일과 7일 알알간 강원도 정선 알파인경기장에서 열린다. 16개국에서 총 58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조직위는 올림픽 본 대회를 앞두고 시설과 경기장 코스 운영 능력 등을 점검하며 본격적인 계도에 돌입한다.

더불어 오는 9일이면 개막 2년으로 대회 전반적인 준비에 대한 중간점검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조 위원장은 “이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야 하고, 그 중 하나가 테스트이벤트”라며 “이제는 대회의 계획 단계에서 운영 단계로 넘어왔다. 모든 것을 실천처럼 해

소프트웨어를 강화하는 것이 올해 목표”라고 했다.

이어 “많은 국내 기업들이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의 협력과 여러 가치를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다”며 “스폰서 마케팅은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준하 대회운영 부위원장은 “현재 예산은 과거 토리노와 밴쿠버의 실적을 넘었다. 국가차원에서 지원한 소치와는 비교대상이다”며 “소치가 1조4000억원 수준이고, 우리 목표는 8500억원이다.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내외신 기자 80여명이 몰려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테러 대비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테러에 무조건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면서도 “민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는 게 좋다.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 여부에 조직위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냐는 질문에는 “올림픽 정신에 의해서 어느 나라나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위원회가

관련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KOC나 정부가 판단할 일이다”며 “우리가 직접 북한과 접촉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동계스포츠 저변과 관련된 질문도 있었다.

“올림픽 유치 이후 한국의 동계스포츠 인프라가 오히려 줄었다는 외신 기자의 지적에 조 위원장은 “정보가 다르다. 스키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고, 스노보드 인기도 많이졌다. 유치 당시에 동계스포츠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뉴 호라이즌(New horizon)’을 모토로 삼았다. 올림픽 유치와 함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이스하키가 미미했지만 요즘 어린 아이들은 하키를 배우기 위해 붐이 일고 있다. 또 설매 종목에서 우리 선수들이 상위권에 오르고 있다”며 “올림픽 유치를 통해 관심이 높아졌고, 체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의 ‘뉴 호라이즌(New horizon)’을 증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계스포츠는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눈이 충분해야 하고, 추운 날씨가 요구된다. 이상 고온이 대회 개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 위원장은 “이번 시즌 유럽에서 열리기로 했던 스키 월드컵 10개 대회 중 7개가

취소됐다. 정선도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전까지는 고온이어서 걱정했지만 이후에 추워졌다”며 “FIS가 요구하는 충분한 눈을 만들 수 있다. 제설을 위해 요구 수준의 120%로 준비하고 있다. 눈의 저장 방법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숙박 문제와 관련해선 “누구나 만족하게 할 순 없다. 우리가 약속했던 2만개의 방은 확보했다”며 “올림픽 기간 중에 평창에서 서울을 1시간 반이면 올 수 있다. 대도시의 호텔을 원한다면 서울이 옵션이다”고 전했다.

최근 강원도가 추진 중인 ‘올림픽 페스티벌’에 대해서 유감스러움을 표실했다. 양부시 마케팅(매부 마케팅·공식 후원사로 등록되지 못한 업체가 광고 권리가 없음에도 간접적으로 마케팅을 벌이는 것) 우려 때문이다.

강원도가 IOC와의 조율 없이 행사 명칭에 ‘올림픽’을 사용한 것에 대해 조직위원회는 IOC에 제발 방식을 약속하고, 이번 행사만 허용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양부시 마케팅 가능성에 대해 직접 공문으로 (강원도에)경고했다. 국제 올림픽 수준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이번 강원도의 경우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큰 레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김민근 기자

산악인 엄홍길, 스포츠 안전 홍보대사로 위촉

산악인 엄홍길(56)씨가 스포츠 안전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스포츠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각종 안전정책과 캠페인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산악인 엄홍길씨를 스포츠 안전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2년 동안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스포츠 안전 홍보 동영상과 포스터 출연 안전 관련 강연 등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엄씨는 세계 최초 히말라야 8000m 이상 16개봉(峰) 등정에 성공했고, ‘엄홍길 휴먼재단’을 설립해 네팔에 학교를 설립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영화 ‘히말라야’의 실제 주인공으로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산악 스포츠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홍보대사 위촉은 문체부의 올해 스포츠 안전정책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서, 향후 안전정책 추진에서의 국민 공감대를 확보하고, 관련 정책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근기자

꽃 BBC “존 테리, 첼시 머무를 수도”

올 시즌을 끝으로 첼시를 떠날 것으로 알려진 존 테리(36)가 팀과 재계약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공영 BBC는 3일(한국시간) “거스 히딩크 감독에 따르면 올 여름 계약이 만료되는 테리가 계속 첼시에 머무를 수도 있다”고 전했다.

히딩크 감독은 “팀을 대화를 원하고 문은 열려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 문은 닫히지 않았다”고 테리의 재계약 가능성을 시사했다.

테리는 지난 1일 올 시즌을 끝으로 첼시와의 계약이 종료돼 팀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구단에서 재계약을 원치 않았고, 자신 역시 은퇴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당시 테리는 전했다.

이에 테리는 현재 ‘첼시 전설’ 지안프란코 졸라 감독이 이끄는 알 아라비(카타르) 이적설이 제기됐다. 또 미국프로축구(MLS)와 중국 슈퍼리그 진출 가능성도 점쳐진다.

히딩크 감독은 테리의 체력 관리 등을 극찬하며 애뜻한 마음을 전했다. /김민근 기자

박병호, 데뷔 전 지명타자 ‘톱10’ 선정

메이저리그로 날아간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가 데뷔도 하기전에 지명타자 부문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CBS스포츠는 3일(한국시간) 2016시즌 포지션별 랭킹 중 최고 지명타자 10명을 발표했다.

CBS스포츠는 박병호를 10위로 뽑으며 “아직 어떤 활약을 펼칠지 알 수 없다. 29살의 한국인 타자는 KBO리그에서 지난 2시즌 동안 105홈런을 때려냈을 만큼 인상적인 파워를 갖췄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한국 타자들도 메이저리그에서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한국에서 타자들이 메이저리그로 진출할 때처럼 크게 도약할 때는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지만 박병호는 큰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평가했다.

아직 아무것도 보여준 것이 없는 한국인 파워히터 박병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면서도 강정호가 지난해 성공적인 시즌을 치른 것처럼 박병호도 메이저리그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는 분석이다.

이번 포지션별 랭킹은 지명타자 제도가 있는 아메리칸리그 팀들을 대상으로만 순위가 정해졌다. 비록 상위 10명 중 맨 마지막에 선정됐지만 10명의 선수 중 메이저리그 기록이 전혀 없는 선수 역시 박병호 뿐이다. /김민근기자

김장미, 사격 2연패 ‘정조준’

‘국제용 선수’로 관심 큰 무대 강한 강심장

‘겁 없는 막내’였던 김장미(24·우리은행)가 여느새 올림픽 사격 2연패를 향해 총끝을 겨누고 있다.

2012년 런던올림픽 당시 스무살이었던 김장미는 두류한 배짱을 과시하며 여자 사격 25m 권총에서 한국에 대회 두번째 금메달을 안겼다.

첫 올림픽 무대였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결선에서 베테랑 천영(39·중국)을 상대했던 그는 3시리즈가 끝난 후 0.8점차로 뒤져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5발에서 모두 10점을 남기며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특히 4시리즈 3번째에서는 만점인 10.9점을 쏘아. 중요한 순간일수록 집중력이 빛을 발했다.

강심장으로 유명했던 김장미는 일찌감치 ‘국제용 선수’로 관심을 받았다. 그는 2010년 유스올림픽 여자 10m 공기권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여자사격의 미래로 발돋움했다. 성인 무대에서도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낸 김장미는 한국 여자사격 사상 두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따내며 일약 국민적 스타가 됐다.

어린 나이에 큰 성과를 거둔 선수들이 이후 부진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김장미는 달랐다. 군인도 되고 싶고, 경찰도 되고 싶었던 꿈 많은 소녀는 금메달을 목에 건 후 사격에만 집중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김장미는 청와대 경호원, 경찰대 사격 교관 등 매력적인 러브콜이 왔지만 모두 뿌리쳤다고 밝혔다.

올림픽 이후 곧바로 열린 방콕월드컵 파이널에서도 그는 25m 권총에서 정상에 올랐고 2012년 국제사격연맹 올해의 선수에 뽑히는 영광을 누렸다. 이듬해에는 포트베닝월드컵에서 좀처럼 재미를 보지 못했던 10m 공기권총에서 정상에 올라갔다.

2014년 그는 올림픽에 이어 아시안게임 제패에 나섰다.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둔 7월에 열린던 베이징월드컵에서 25m 권총 우승을 차지하며 기세를 올렸다.

그런데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다. 기대를 모았던 아시안게임에서는 25m 권총 5위에 그쳤다. 10m 공기권총도 7위에 머물렀다.

2015년은 김장미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한 해였다. 굵직한 월드컵 및 국제대회에서 한 차례도 입상하지 못했다. 포트베닝월드컵 25m 권총에서 7위를 한 것이 전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격은 김장미에게 변함없는 기대를 걸고 있다.

김장미에게는 남다른 배포가 있기 때문이다. 심리적 요인과 컨디션 승패를 크게 좌우하는 사격에서 강한 정신력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산이다. 더욱이 김장미는 가장 큰 무대인 올림픽 결선에 선 경험이 있다.

그가 런던에서와 같이 강심장을 과시하며 올림픽 2연패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민근 기자



LetsRun FARM 장수 (구.장수육성목장)

우리나라 말 산업을 견인하는 전초기지입니다.

LetsRun FARM 장수 는

경주마 및 승용마를 아우르는 명마생산의 메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천연의 목가적 풍경과 다양한 말 문화 체험프로그램으로 최고의 힐링 쉼터를 제공합니다.

명마 생산과 육성의 메카 LetsRun FARM 장수